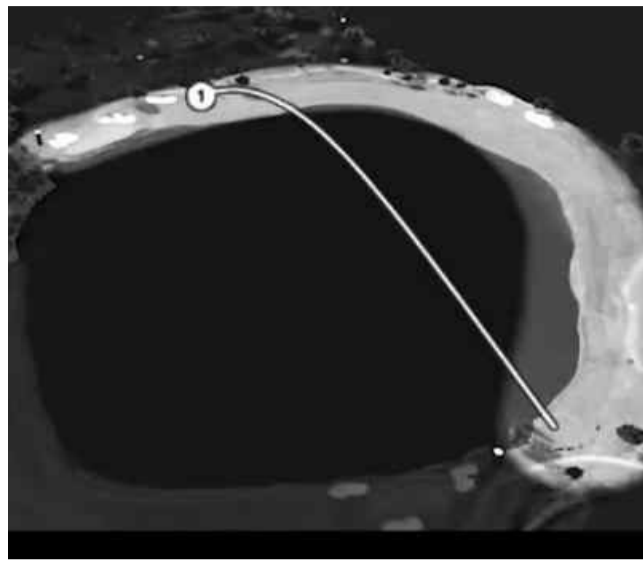


# 약속 지킨 디샴보...파5홀 호수 넘긴 '괴력 샷'

370야드 장타로 그린 옆 떨어져  
두손 번쩍 들고 "우승한 기분"  
PGA투어서 화끈한 팬서비스



호수를 넘긴 괴력샷으로 팬서비스를 한 디샴보. 오른쪽은 6번 홀 디샴보의 티샷 그래픽. 우측 페어웨이를 따라가는 공략법이 일반적이다. /연합뉴스

'괴력의 디샴보'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회장에 입장한 팬들에게 시원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남자 골프 세계 랭킹 11위 브라이언 디샴보(28·미국)는 7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PGA 투어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총상금 930만 달러) 3라운드까지 10언더파 206타를 쳐 선두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에게 1타 뒤진 공동 2위에 올랐다.

이날 디샴보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6번 홀(파5)이었다.

이 홀은 호수를 끼고 왼쪽으로 흰 홀이다. 페어웨이를 거쳐 그린으로 가는 정공법을 택하면 스코어카드 상으로 555야드, 이날 3라운드 실제 거리는 531야드로 세팅된 곳이다.

그러나 과감하게 호수를 가로지르는 방법을 택해 직접 그린을 공략하면 약 345야드 이상을 싸야 물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다.

대회 개막 전에 디샴보는 이 홀에서 호수를 넘겨 한 번에 공을 그린에 보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 2라운드 때는 페어웨이 쪽으로 돌아가는 방

법을 택했던 디샴보는 대회 사흘째인 3라운드에 드디어 호수를 넘기기로 했다.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무관중 대회로 열린 PGA 투어 대회는 2월 피닉스오픈에 하루 5000명 정도 관중 입장을 허용했고, 이번 대회도 비슷한 수의 관중이 들어오고 있다.

모처럼 대회를 찾은 갤러리들에게 디샴보의 '화끈한 괴력'은 더할 나위 없는 '팬 서비스'가 됐다.

그는 그린보다 약간 오른쪽으로 공을 보내 '원

온'(One on)에는 실패했지만 풀 스윙을 하자마자 양손을 번쩍 치켜들며 자기 뜻대로 공이 맞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미국 골프전문 매체 골프채널에 따르면 "날아간 비거리만 347야드, 공이 땅에 닿은 후 구른 거리까지 하면 370야드"로 측정됐고 스윙 시 클럽헤드 스피드 시속 220km, 공 스피드 315km를 기록했다.

디샴보는 홀 70야드 거리에서 두 번째 샷을 시도하며 결국 버디를 잡아냈다.

디샴보는 이 홀의 소감에 대해 "마치 어린이가

가 된 것 같았고, 대회에서 우승한 기분"이라며 "공이 물에 빠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고 기뻐했다.

그는 "팬들이 원하는 장면을 보여준 것 같다"고 자평하며 "바람이 조금 더 유리하게 불었다면 그린 쪽을 더 겨냥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디샴보는 "마치 마지막 날 1타 앞선 18번 홀 티샷을 하는 것처럼 긴장됐다"며 "물론 팬들이 입장하지 않은 대회였더라도 이 샷을 시도했겠지만 팬들의 역할도 매우 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세계 1위 고진영 충격의 '컷 탈락'

LPGA투어서 2년 7개월 만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고진영(26)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드라이브는 챔피언십(총상금 150만 달러)에서 컷 탈락했다.

고진영은 6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오칼라의 올드 오칼라 골프 클럽(파72·6526야드)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버디와 보기 하나씩을 묶어 이븐파 72타를 쳤다.

1라운드 3오버파 75타로 공동 86위에 그쳤던 고진영은 이틀간 합계 3오버파 147타로 공동 72위에 머물러 컷을 통과하지 못했다. 컷은 2오버파 146타였다.

고진영이 LPGA 투어 대회에서 컷 탈락한 건 세 번째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활동하며 가끔 LPGA 투어 대회에 나서던 2017년 3월 ANA 인스피레이션, LPGA 투어에 정식 데뷔한 2018년 8월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컷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리고 2년 7개월 만에 또한 번 컷 탈락이 기록됐다.

고진영은 올해 들어 처음 출전한 대회인 지난주 게인브리지 LPGA에서 4위에 올랐으나 이번 대회에선 기세를 잊지 못했다.

이날 2라운드는 10번 홀에서 시작, 15번 홀(파3) 버디를 잡아냈으나 17번 홀(파4) 보기를 써내 전란 타수를 줄이지 못하고, 후반엔 9개 홀 모두 파를 기록했다.

그는 이날 페어웨이는 한 번밖에 놓치지 않았으나 그린을 6차례 놓치고 퍼트 수가 30개에 달했다. /연합뉴스



WTT 남자복식 결승에서 우승한 조대성(왼쪽)과 이상수. /연합뉴스

# 탁구 이상수-조대성 '복식 필승조'

새로 출범한 WTT 첫 대회서 남자복식 우승

새로 출범한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첫 대회에서 이상수-조대성(이상 삼성생명) 조가 남자복식 금메달을 따냈다.

이상수-조대성 조는 6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2021시즌 WTT 콘텐더 1차 대회(총상금 20만 달러) 남자 복식 결승전에서 호라시오 치푸엔테스-가스톤 알토(이상 아르헨티나) 조를 3-2(11-3 9-11 11-7 9-11 13-11)로 제압하고 우승했다.

2019년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 투어 체코 오픈에서 처음 호흡을 맞춰 우승까지 차지했던 이상수-조대성 조는 2년 만에 다시 나선 이번 대회에서도 1위에 올라 한국 남자 복식의 '필승 조합' 기대감을 부풀렸다.

한편, 앞서 열린 남자 단식에서는 조대성(141위)이 8강, 이상수(22위)와 안재현(39위·삼성생명)이 16강 진출의 성적을 냈다.

여자 단식에서는 양하은(81위)과 전지희(15위·이상 포스코에너지)가 8강, 서효원(21위·한국마사회)이 16강까지 올랐고, 신유빈(94위·대한항

공)은 첫판인 32강전에서 탈락했다.

이번 대회는 탁구의 상업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ITTF가 새로 출범한 별도 법인 WTT의 첫 대회다.

기존 월드컵, 월드투어 대회들이 사라졌으며, 세계선수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제 대회가 WTT의 이름으로 열린다.

WTT 콘텐더가 연 총 14차례, 이보다 한 단계 높은 WTT 스타 콘텐더가 최대 6차례 치러진다. 테니스의 '그랜드슬램' 대회 격으로 최대 4차례 열 예정인 WTT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는 남녀 상위 랭커 각 32명이 출전해 겨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시즌 전체 일정이나오지 않은 가운데, 도하에서 8일부터 스타 콘텐더 1차 대회가 이어진다.

이번 대회 남자 단식에서는 장우진(11위·미래에셋대우)이 5번 시드, 정영식(13위·국군체육부대)이 7번 시드로 출전한다.

여자 단식에서는 전지희가 6번, 서효원이 8번 시드로 배정받았다. /연합뉴스



넣는다 vs 막는다 7일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여자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1차전 삼성생명 블루밍스와 KB 스타즈의 경기에서 삼성생명 김한별(왼쪽)이 KB 박지수의 돌파를 막고 있다. 삼성생명이 KB를 76-71로 꺾고 1차전에서 승리하며 '4위의 반란'을 이어갔다. /연합뉴스

# '스키 여제' 시프린 월드컵 통산 69승

미케일라 시프린(26·미국)이 국제스키연맹(FIS) 알파인 월드컵에서 통산 69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시프린은 6일(현지시간) 슬로바키아 야스나에서 열린 2020-2021 FIS 월드컵 알파인 여자 회전 경기에서 1, 2차 시기 합계 1분 44초 28을 기록, 페트라 블로바(슬로바키아·1분 44초 62)를 0.34초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시프린은 1월 오스트리아 플라하우에서 열린 회전 경기 이후 두 달 만에 승수 추가, 이번 시즌 3승째를 거뒀다. 다른 1승은 지난해 12월 대회전 경기에서 나왔다.

이번 우승을 포함해 시프린의 통산 월드컵 승수는 69승으로 늘었다.

월드컵 통산 우승 횟수 3위인 시프린은 1위 잉에마르 스텐마르크(스웨덴·86승), 2위 린지 본(미국·82승)과의 격차를 한 발 더 좁혔다.

특히 시프린은 회전에서만 45번째 우승을 달성, 스텐마르크가 대회전에서 쌓은 역대 월드컵 단일 종목 최다승 기록인 46승에 1승만을 남겨뒀다.

이번 대회에서 시프린은 1차 시기 51초 91의 기록으로 블로바(51초 64)에게 밀렸으나 2차 시기에서 52초 37로 블로바(52초 98)를 앞질러 우승을 일궈냈다.

고국에서 열린 대회에서 우승을 노린 블로바는 1차 시기 리드를 지키지 못한 채 2위에 만족해야 했다.

월드 휠데네르(스위스)가 합계 1분 44초 80으로 3위에 올랐다.

한국 선수로는 김소희(25·하이원)가 1차 시기 59초 28로 52위에 그쳐 30명이 진출한 2차 시기에는 오르지 못했다. /연합뉴스

## LOTTE CINEMA | 총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미나리
2관	리아와 마지막 드래곤
3관	리아와 마지막 드래곤, 미션 파서블
4관	미션 파서블
5관	미나리
6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9관	리아와 마지막 드래곤, 통과 제리
7관	씨네커플러 리아와 마지막 드래곤, 소울
8관	씨네커플러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통과 제리, 카오스 워킹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국악 상설 공연**  
일시 : 2021. 02. 24.(수) ~ 03. 31.(수)  
매주 화-토 17:00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GAC기획공연 포시즌1  
임동민&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일시 : 2021. 03. 14.(일) 17: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